
전승 자료를 통해 본 신라통일기 기장지역의 불교

조원영 / 합천박물관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삼국유사』 혜통항룡조에 나타난 |
| II. 기장지역 사찰 관련 설화 | 기장지역의 불교 |
| 1. 안적사(安寂寺) 창건 설화 | IV. 전승 자료를 통해 본 기장지역 |
| 2. 옥정사(玉井寺) 관련 전승 설화 | 불교의 성격 |
| 3. 선여사(船餘寺) 관련 전승 자료 | V. 맺음말 |
| 4. 척판암(擲板庵) 창건 설화 |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

I. 머리말

삼국시대 우리나라에 전래된 불교는 우리 민족의 제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즉 사상이나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풍습, 언어, 건축양식,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유형·무형의 문화요소에 스며들어 있다.

부산지역에는 이르면 가야시대에 이미 불교가 전래되었거나 늦어도 신라에 복속된 후에 불교가 전래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왕경(王京)이 아닌 대부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래의 과정이나 전해진 불교의 성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부산의 가장 큰 사찰인 범어사의 경우에는 최치원의 『법장화상전』이나 일연의 『삼국유사』, 조선시대의 지리지 『동국여지

승람』 등의 사료를 통하여 신라통일기 화엄종 계통의 사찰로서 창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신라통일기 부산지역에는 사상적인 측면에서 화엄종과 같은 교학불교가 성행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부산지역에 있는 그 외의 사찰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찰의 명칭 정도 이외에 특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료를 통해서 부산지역 불교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재 남아 있는 사찰과 절터, 불탑과 승탑, 불상, 불화, 사찰내의 개별 전각 등을 살펴보아도 가장 오래된 불교유물이 9세기 이전으로 올라가지 않으며, 비록 부산지역 불교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들 불교미술자료를 통하여 부산 불교가 가진 사상적인 경향이나 신앙 형태의 특징들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기장지역에는 전래된 불교의 성격이나 당시의 신앙 형태를 짐작할 수 있는 사찰의 창건 설화나 그 외의 전승 자료가 남아 있다. 기장지역은 가장 늦게 부산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현재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나마 다른 부산지역에 비해서 훨씬 문화의 원형을 많이 보존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기장지역의 사찰 관련 전승 자료를 살펴보면 모두 원효와 관련된다는 특징이 있다. 불교와 관련된 기장지역의 전승 자료가 기장지역 불교의 실상을 가감 없이 정확히 알려주는 자료라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자료가 원효와 관련이 있다면 당시 불교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장지역에 남아 있는 불교와 관련된 전승 자료를 분석해 봄으로써 신라통일기 기장지역 불교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기장지역 사찰 관련 설화

1. 안적사(安寂寺) 창건 설화

『기장현읍지』에는 기장의 4대 사찰로 선여사(船餘寺), 취정사(鷲井寺), 안적사(安寂寺), 장안사(長安寺)가 기록되어 있다. 또 기장의 산천을 노래한 『차성가』에는 옥정사(玉井寺)라는 사찰 이름이 전하고 있으며, 『송고승전』 권4 원효전에는 척판암(擲板庵)이라는 암자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 척판암은 현재 장안사에 딸려 있는 암자인 척반암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들 기록에 나타난 사찰들은 하나 같이 원효가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당대의 기록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 기록은 당시 불교의 모습을 일부나마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기장지역 불교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사찰 창건과 관련된 전승 자료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기장군 기장읍 내리에 있는 안적사에 창건설화가 전해 내려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략)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일찍이 형제의 의를 맺고 같이 구도의 길을 찾아 명산을 두루 순방하며 정진에 열중하던 젊은 시절이었다.

두 스님은 같이 정진하여 성불할 것을 약속하고 명산을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보다가 장산 기슭에 이르렀는데 숲속에서 꾀꼬리 떼가 모여들어 두 스님의 앞을 가로막았다.

괴이하게 여긴 두 스님은 꾀꼬리 떼가 이렇게 많이 짹을 지어 노니는 것은 상서로운 기운이 이 산에 깃들여 있는 것이라 하여 이곳에서 정진하면 곧 성불하게 될 것이라 여겨 토굴을 지어 의상대사를 살게 하고 원효대사는 지금의 안적사가 있는 곳에 토굴을 지었다. 그리하여 똑같은 시각에 공부를 시작하여

누구든지 먼저 오도(悟道)하게 되면 서로 만나기를 맹세하고 헤어져 살았다.

이렇게 해서 두 스님은 피나는 정진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상대사는 선녀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공(天供)을 올리는 것을 받아 공양하게 되었다. 그는 혼자 매일 선녀의 천공을 받아 공양하며 공부하는 것을 원효대사에게 자랑하고 싶어 한날은 같이 공양하자고 원효스님을 청하였다.

오랜만에 그 간의 얘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사시(巳時)가 되었다. 선녀가 천공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던 의상스님은 애를 태웠지만 선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의상대사의 이런 태도에도 아랑곳없이 원효대사는 시간이 넘어도 선녀가 오지 않으니 자기 토굴로 내려가야겠다고 하고 서로 헤어졌다. 원효대사가 내려간 뒤 얼마 안 있어 선녀가 천공을 가지고 의상대사 앞에 나타났다. 의상스님은 선녀에게 왜 지금에야 왔느냐고 나무라니 선녀가 말하기를 천공을 가지고 오는데 스님 계신 토굴 주위에 화광이 가득 차 있어 무서워 못 들어 왔노라고 말했다.

의상대사는 그제야 마음속으로 원효대사의 신통으로 금강삼매화(金剛三昧火)를 놓으신 것이 분명하다 여기고 이후로는 원효대사를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다 한다.

그 후 두 사람은 성불에 입문하게 되자 후학을 지도하기 위해 이곳에 수선실(修禪室)을 넓혀 큰 가람을 신축하게 되었다. 처음 이 산중에 들어올 때 꾀꼬리 떼가 모여들어 길을 막았다 하여 산 이름을 앵림산(鶯林山)이라 부르게 하고 이곳에서 정진하여 안심입명(安心立命)의 경지를 요달(了達)하여 적멸상(寂滅相)을 통관하였다 하여 절 이름을 안적사(安寂寺)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¹⁾

1) 덕명, 1972, 「안적사 창건유래」, 안적사.
기장군지편찬위원회, 2001, 『기장군지』 하, 기장군청, 397쪽.

이 창건설화는 필자가 안적사를 방문하여 지금은 입적한 전주지 덕명 스님에게서 직접 받은 자료이다. 환담을 나누면서 안적사의 유래에 대해서 덕명 스님에게 물어보니 이 자료를 주면서 안적사는 원효 조사를 개산조(開山祖)로 모시고 있으며, 예전 안적사는 수선납자(修禪衲子)들이 구름 모이듯 모여들어 한철씩 수행하고 떠나가는 남방수선제일도량(南方修禪第一道場)으로 역대의 큰스님을 많이 배출하여 그 이름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 안적사 창건설화가 언제 형성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 설화는 오래전부터 전해졌던 설화의 원형에 장소와 주인공만 바꾸어 사찰 창건에 관한 내용을 구성하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즉 이 설화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의상의 행적과 관련된 설화를 그 내용과 설화의 장소, 주인공만 바꾸고 전체적인 이야기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의 의상법사가 당나라에 들어가서 종남산 지상사(至相寺) 지엄존자(智嚴尊者)가 있는 곳에 이르니, 그 이웃에 도선율사(道宣律師)가 있었다. 늘 하늘의 공양을 받고, 재를 올릴 때마다 하늘의 주방에서 음식을 보내왔다. 하루는 도선율사가 의상법사를 재에 청했다. 의상이 와서 자리에 앉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 하늘의 공양은 때가 지나도 이르지 않았다. 의상이 빈 바리때로 돌아가니 천사는 그제야 내려왔다. 율사가 물었다. “오늘은 어째서 늦었소?” 천사는 답했다. “온 골짜기에 신병(神兵)이 가로막고 있으므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율사는 의상법사에게 신의 호위가 있음을 알고 그의 도력이 자기보다 나옴에 굴복하여 그 공구(供具)를 그대로 남겨 두었다가 이튿날 또 지엄과 의상 두 대사를 재에 청하여 그 사유를 자세히 말했다.²⁾

2) 『三國遺事』 卷 3 塔像 4 前後所將舍利.

이 설화는 당나라에 유학 간 의상법사가 중국 율종의 창시자인 도선율사보다도 더욱 뛰어난 위신력을 보여주었다는 것과 부처님의 이[佛牙]를 모셔 오게 된 연유를 기록한 것이다. 이 내용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되, 장소는 당나라의 종남산에서 기장의 앵림산으로, 등장인물을 의상과 도선 대신에 원효와 의상으로 대체하여 의상에 대한 원효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안적사의 창건 설화로 채용하였던 것이다.

이 설화에서 보듯이 원효와 의상이 불도를 깨우치기 위해 도반으로 함께 활동한 시기는 대체로 10여 년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의상은 644년(선덕왕 13) 19세의 나이로 경주 황복사에 출가하였으므로 두 사람이 함께 불도에 정진하던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것이고,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것은 661년 두 번째 당나라 유학을 감행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사이 기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원효는 젊은 시절 울산 영취산³⁾ 서북쪽에 있는 반고사에 머물면서 인근의 영취산에 머물고 있던 낭지를 찾아 교학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였다. 그에 관한 자료가 『삼국유사』에 전한다.

3) 영취산은 원래 영취산(靈鷲山), 취서산(鷲棲山) 등으로 불리어 왔는데, 2001년 1월 양산시 지명위원회에서 『법화경』 언해본, 통도사 내력 등에 영축산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여 영축산으로 통일하였다고 한다. 통도사측에서도 영축산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아야 할 점이 있다. 영취산은 본래 인도 마가다국의 왕사성(王舍城) 북쪽에 있는 산인데, 이곳에서 석가모니께서 법화경(法華經)을 설하였기 때문에, 매우 신령스러운 곳으로 여기고 있으며, 기사굴산(耆闍崛山)으로 음역하기도 한다. 산의 이름에 독수리 취(鷲) 자가 들어간 것은, 이 산이 독수리 모양을 닮아서 그렇다는 설과 독수리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산의 이름이 독수리에서 연유했다면 독수리'취'자가 옳은 것으로 보인다. '취'를 '축'으로 읽는 예는 없고, 그 음도 예로부터 '취'로 발음되어져 왔다. 아마도 깨달음을 뜻하는 불교 용어 보리(菩提)에서의 '제(提)'를 '리'라고 표기한 것이 '이치 리(理)'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축'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인도 축(竺) 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원효(元曉)가 반고사(磻高寺)에 있을 때에는 항상 낭지(郎智)에게 가서 보니 그는 원효에게 『초장관문(初章觀文)』과 『안신사심론(安身事心論)』을 저술하게 했다. 원효가 짓기를 마친 후에 은사(隱士) 문선(文善)을 시켜 책을 받들어 보내면서 그 편미(篇尾)에 계구(偈句)를 적었으니, 이러하다.

서쪽 끝에 중의 머리 조아려, 동쪽 봉우리 상덕(上德) 고암(高巖) 앞에 예하노라(반고사는 영취산의 서북쪽에 있으므로 서쪽 골짜기의 중은 바로 원효 자신을 일컫는 것이다).

가는 티끌 붙어 보내 영취산에 보태고, 잔 물방울 날려 용연(龍淵)에 던지도다.⁴⁾

원효의 계송에는 낭지에 대한 존경이 가득 담겨 있다. 이 사료에서 젊은 시절 원효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대덕(大德)에 대하는 겸손한 자세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원효는 왕경의 남쪽에서 혼자 수도를 하다가 첫 입당을 꿈꾸던 650년이 다 되어서야 의상과 뜻을 같이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스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후학을 지도하기 위해 수선실(修禪室)을 넓혀 안적사를 큰 가람으로 신축하였다는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사찰 연기 설화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상이 귀국한 671년(문무왕 11) 이후에 원효는 분황사, 고선사 등 왕경의 사찰에 머물며 활동하고 있었고, 의상은 영주 부석사에 터를 잡고 제자를 양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이후로 두 스님이 함께 이곳에 머무를 시간은 없었을 것이다.

수선실을 넓혔다는 내용을 통하여 이 설화가 조선시대 이후 형성된 이야기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조선 왕조는 초기부터 지속

4) 『三國遺事』 卷 5 避隱 8 朗智乘雲普賢樹.

적으로 불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1405년(태종 5) 국가에서 정한 사원에만 토지와 노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사찰들을 혁파하였으며, 1407년(태종 7)에는 11개 종단이 7개로 줄어들었다. 1424년(세종 6)에는 7개 종단을 다시 선·교 양종으로 통합하고 사찰의 수도 선·교 각 18사찰씩 36곳만 존속시켰다.

1510년(중종 5) 다수의 사찰을 혁파하고 그 토지를 향교에 존속시켰으며, 1516년(중종 11)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승려의 출가를 규정한 ‘도승조(度僧條)’를 삭제함으로써 불교는 더 이상의 법적인 존재 근거를 잃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교의 교학적 발전은 위축되고 승려들은 수선(修禪)에 전념할 여유도 잃어갔다.

그러나 명종 때 문정왕후의 후원으로 일시적인 재건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이때 선·교 양종이 재건되고 승과와 도첩제가 다시 실시됨으로써 이후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즉 이때 배출된 서산 휴정과 사명 유정 등이 임진왜란을 맞이하여 의승군(義僧軍) 활동을 벌이면서 승려들이 크게 활약하였고 이러한 활동을 국가에서 인정해주었던 것이다.

왜란과 호란 이후 불교계는 특정한 스승을 계승하는 문파들이 형성되었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문도였던 서산 문도들이 인조대에 서산 휴정이 고려 말의 고승 태고 보우의 법통(法統)을 이었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불교계의 정통설로 확립되었다. 이러한 법통설 정립 과정을 통하여 조선 불교는 자연스럽게 선(禪)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선과 관련 없는 교학 불교의 대표자인 원효와 의상이 수선설을 넓히고 제자를 양성하였다는 설화의 내용은 아무리 일러도 선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조선 후기가 되어야 가능한 이야기인 것이다. 따라서 안적사 창건설화는 설화의 형성 시기가

아주 늦은 시기로서 원효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전승 자료를 통해서 안적사가 원효와 인연 있는 사찰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은 이전부터 기장 일대에 원효 관련 전승 설화가 전해져 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2. 옥정사(玉井寺) 관련 전승 설화

다음으로 기장군 일광면 원리에 있는 옥정사(玉井寺)와 관련된 전승 설화를 살펴보자. 옥정사는 달음산 옥녀봉의 기슭 옥정계곡 옆에 있는 사찰이다. 옥정사의 옥천(玉泉)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한다.

취봉산(달음산) 서쪽에 있는 취정사에 머물고 있던 원효대사는 왕도(경주)로 가려고 옥녀봉을 넘어 동쪽 산기슭에 이르러 동해의 해를 바라보다가 문득 갈증을 느꼈다. 그때 마침 아름다운 처녀가 웅달샘에서 샘물을 물동이에 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대사께서 물을 청하자 처녀는 표주박 가득히 샘물을 떠올렸다. 그 샘물을 마시자 온몸이 시원해지면서 무거운 몸이 흥모처럼 가벼워졌다. 대사는 세 번이나 받아 마시고 처녀에게 '나무관세음보살'을 읊으며 고마운 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그 처녀는 몸이 굳어지면서 돌로 변하여 관세음보살상이 되었다. 대사는 그 처녀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음을 알고 오체투지의 예를 올렸다. 그런 뒤 대사는 이곳이 관음도량임을 알고 초막을 짓고 잠시 머물면서 동해 용왕에게 이 옥샘을 지켜 주기를 당부하고 왕도로 떠났다. 그 후 이곳은 동해용왕이 지켜 주는 옥샘이 있고 관세음보살의 석상이 계신 지라 마을 사람들이 암자를 짓고 옥천사라 하였다고 한다.⁵⁾

5) 在釜舊機張郡鄉人會, 1992, 『舊機張郡鄉土誌』, 304~305쪽.

한때 달음산 기슭에는 취정사와 옥천사가 두 개의 큰 사찰로 양립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어느 시기 달음산 자락에 함께 있던 취정사와 옥천사가 모두 퇴락한 뒤에 옥천사가 있던 터에 다시 암자를 짓고 절 이름을 고쳐 옥정사라 하였다. 『기장현읍지』에는 옥정사에 관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차성가』에 “옥정사 깊은 골의 春景을 구경하고”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꽤 오랜 연원을 지닌 사찰임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차성가』는 작품의 연대와 작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1800년대에 제작된 작품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이 작품에 옥정사라는 절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옥정사는 1800년대에는 존재했던 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옥정사는 1923년 10월 10일 박선해 선사가 옛 옥정사 터를 찾아 새로 창건하였고, 1954년경 박한봉 스님이 많은 불사를 하였으며 이후 최근까지 전각을 신축하고 법고 사물을 갖추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옥정사와 관련된 전승 기록이 언제 형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원효가 의상과 헤어진 이후인 661년(문무왕 원년)부터 671년(문무왕 11)경까지는 향사사의 혜공과 교류하고 저자 거리에서 무애행(無碍行)을 행하였기 때문에 왕경 인근 지역인 울산, 양산, 기장지역까지 활동의 폭을 넓혔을 가능성이 있다. 672년경 분황사에 머물게 된 것으로 보아 원효가 기장지역에 머물렀던 시기는 671년 정도가 상한선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3. 선여사(船餘寺) 관련 전승 자료

『기장현읍지』에 선여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선여사는 서쪽 4리에 있는 백운산에 있다. 산정에는 항상 흰 구름이 끼어 있다. 그래서 신라의 승려 원호대사가 이곳에 절을 세우고 절이 흰 구름바다 속에 떠 있는 배처럼 보인다고 하여 그 이름을 선여사(船如寺)라 하였다. 지금은 잔폐(殘廢)하여 고적이 되었으며, 대룡사(大龍寺)라 개칭하였다.⁶⁾

선여사는 절이 구름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이 보인다고 하여 선여사(船如寺)로 불렸다가 뒤에 대룡사(大龍寺)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1800년대 기장을 노래한 『차성가』 하서면 편에도 ‘선여사’가 보이는데 여기에는 선여사(船餘寺)로 되어 있다.

반월성(半月城) 돌아드니 신월(新月)이 그 아닌가.
두전(斗田)에 쌓인 곡속(穀粟) 부명(富鳴)이 종종(種種)하다.
임곡사양(林谷斜陽) 저문 길에 입석(立石)에 말을 매고
우리 벗님 보내는데 그 아니 송정자(送亭子)가
임기촌(林基村)에 꽃 피었고 백운산(白雲山)에 달 떠온다.
선여사(船餘寺) 깊은 골에 고적(古蹟)을 찾아드니
은은한 석경(石磬)소리 망일암(望日庵)이 분명하다.⁷⁾

사찰 이름은 대부분 불교의 개념이나 인연 있는 장소를 따서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선여사(船餘寺)가 원래의 이름이라고 생각된다. 즉 선여사는 불교에서의 일반적인 개념인 ‘반야용선(般若龍船)’의 의미로 사찰의 이름을 지었다고 볼 수 있다.

6) 부산대학교 박물관·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8, 앞의 책, 170쪽.

7) 양산군지 편찬위원회, 1986, 『양산군지』, 1069쪽.

불교에서 반야용선은 사바세계에서 피안의 극락정토로 건너갈 때 타고 가는 상상의 배를 말한다. 피안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물을 건널 탈 것이 필요하다. 『금강경』에서는 피안으로 향하는 탈 것을 뗏목에 비유하였는데, 뗏목은 배와 다름없다. 사찰의 법당은 불자들이 부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의 선실(船室)과 같은 곳이다. 그리고 그 배가 향해 가는 곳이 바로 피안의 극락정토인 것이다.⁸⁾

즉 선여사는 중생들을 피안의 극락정토로 실어 나르는 ‘배(船)’가 중생을 다 태우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다(餘)’라는 불교적인 개념을 차용하여 절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절이 대룡사(大龍寺)로 개칭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절의 명칭과 극락정토로 가는 ‘반야용선’과의 관련성에 더욱 무게를 실어줄 수 있을 것 같다.⁹⁾

선여사는 차성지방, 즉 기장지역에서는 으뜸가는 제일가람으로서 절에 딸린 전답이 300석을 넘었다고 한다. 『기장현 읍지』에도 사찰로서 제일 먼저 선여사를 적고 그 다음에 취정사, 장안사, 안적사의 4대사찰을 기록하고 있다. 관내 주민들은 선여사터를 빈대절터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빈대절터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전국 도처에 있으며, 선여사터와 취정사터가 모두 빈대가 많아 절이 없어져 빈대절터라 부르게 되었다는 똑같은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으므로 아마도 예전에는 큰 절이었는데 조선시대 승유억불정책으로 인하여 승려들이 없어지고 자연히 퇴락하여 빈대만 우글거렸던 곳을 모두 빈대절터라고 불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8) 허 군, 2000, 『사찰장식 - 그 빛나는 세계』, 도서출판 돌베개, 23쪽.

9) 拙稿, 2011, 「기장군 정관면 석탑사 탑계의 형식 분석」 『항도부산』 27, 321쪽.

아무튼 선여사는 기장 제일의 사찰로 퇴락하여 현재는 그 규모를 알 수 없지만 예전에는 범어사와 비견될 정도의 큰 사찰이었다고 전한다.¹⁰⁾

이 선여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통일신라시대 석탑으로 기장지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현재 석탑사의 탑재(塔材)에 주목하여 석탑사 자리가 옛 선여사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¹¹⁾ 그런데 최근 기장군에서 개최된 『차성가』 비(碑) 제막식에 따른 세미나에서 이 가사에 표현되어 있는 장소를 분석한 연구가 나왔다.¹²⁾ 『차성가』 하서면편에서 작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보면 지금의 정관면, 철마면 일대를 돌아보았음을 알 수 있다.¹³⁾

선여사지와 망일암이 백운산 자락에 있었던 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이동 경로를 파악하면 선여사지와 망일암의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차성가』 하서면편에서 작가의 이동 경로는 현재 행정구역으로 정관면의 초입에서 출발한다. 이곳에서 철마면으로 남하하였다가 다시 백운산 방향으로 서북향하여 이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서면 편에서의 작가의 이동경로를 보면 백운산을 넘어서 동쪽 편인 현재 석탑사가 있는 정관면 용수리까지는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차성가』 3장인 하북면편을 보면 백운산의 꼭대기인 소학대에서 출발하여 남쪽으로 내려가 달음산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여사지와 망일암은 백운산 동쪽사면인 정관면 용수리 쪽이 아니라 철마면 임기리와 가까운 백운산의 서남쪽 산록에 위치한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10) 기장군지편찬위원회, 2001, 『기장군지』 상, 기장군청, 476~477쪽.

11) 부산대학교 박물관·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8, 『기장군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 기장군지 편찬위원회, 2001, 『기장군지』 상권, 기장군.

12) 구모룡, 2009, 「차성가에 나타난 장소의 시학」 『기장문화』 6, 기장문화원

13) 구모룡, 위의 논문, 50쪽.

한편 기장군의 불교 폐사원지의 위치를 규명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는데,¹⁴⁾ 옛 지리지 분석과 지표조사를 통하여 선여사지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2000년부터 선여사를 찾기 시작하여 2004년 선여사로 추정되는 대규모 절터와 폐불들을 임기천 상류에서 발견하였다.¹⁵⁾

백운산 서쪽 산록의 해발 350~400m 정도에 해당되는 선여사지는 대략 네 곳으로 분산되어 있고 산록의 구릉 사이에 건물터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지표상에서는 건물터의 초석들과 경주 옥석으로 제작된 모양이 각각 다른 다수의 불상 조각, 각종 기와 조각, 귀얄문의 분청사기 조각, 백자 조각 등이 다량 확인되었으며, 특히 자연석으로 만든 대형 맷돌의 존재는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활하였음을 짐작케 한다.¹⁶⁾

선여사지가 철마면 임기리의 절터라면 현재 석탑사에 남아 있는 탑재는 어느 사찰에 세워져 있던 것일까?

『해동지도』를 보면, 소학대 아래로 ‘불당동리(佛堂同里)’라는 이름이 보인다. 바로 이 이름에 착안하여 지금의 석탑사가 있는 지점에 ‘불당사(佛堂寺)’라는 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¹⁷⁾ 물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불당동리라는 명칭은 이곳에 불상을 봉안하는 불당이 예전에 있었다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절의 법당이 있던 곳을 지칭했던 막연한 보통명사로서의 ‘불당’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석탑사 대웅전이 있는 북쪽 방향에 건물지로 추정되는 흔적이 보이는데 이것은 석탑사 경내에 있는 탑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14) 이봉기, 2009, 「기장군의 불교 폐사원지」 『기장문화』 6, 기장문화원 / 황 구, 2007, 「철마면의 선여사지에 대한 고찰」 『철마면지』, 철마면지편찬위원회

15) 이봉기, 위의 논문, 98~99쪽,

16) 황 구, 위의 논문, 614~615쪽.

17) 이봉기, 위의 논문, 119쪽,

고 보기 어렵다.¹⁸⁾

왜냐하면 석탑사의 탑재는 원래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석탑사 대웅전에서 서남쪽 경사가 꽤 심한 지점에서 도괴되어 흩어진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석탑사가 조성될 무렵 이미 오래전에 도괴되어 있던 석탑을 굴삭기를 동원하여 좀 더 아래쪽으로 옮겨 왔다고 한다.

『차성가』의 하서면편에서 보듯이 선여사와 거리상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망일암(望日庵)의 위치는 단정 짓기 어렵다. 그렇지만 망일암은 사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를 바라보기 좋은 백운산 정상부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동쪽 사면에 절이 위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망일암은 『조선환여승람』에 고려시대의 고찰로서 지리지가 편찬되었던 당시에는 폐사되었다고 한다. 절의 규모는 크지 않았겠지만 동해 쪽을 조망할 수 있으면서 해를 바라볼 수 있는 승지(勝地)에 세워졌으므로 그 의미는 꽤 컸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탑골사의 설화가 주목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관면 덕전마을 뒤에 석탑사가 있는 곳을 탑골이라 한다. 옛날 이곳에 큰 절이 있었으나 절은 불타 없어지고 석탑만 남아 있다 하여 그 이름이 생겼다.

신라시대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이 이곳에 와 보니 달음산 기슭에서 동해가 훤히 보이고 일출의 경관이 장관이었다. 새벽 햇살이 유난히 밝게 비추는 곳을 찾아 갔더니 그곳에서 미륵부처님을 찬탄하는 소리가 들려 삼매에 들어 부처님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곳에 절을 짓고 탑을 세웠다고 한다. 또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이 이곳을 지나가는데 갈증이 나서 물을 찾았으나

18) 拙稿, 앞의 논문, 322쪽.

물이 없었다. 그때 관세음보살이 예쁜 아가씨로 화신하여 쪽박에 물을 떠서 주는 것을 마시고는 심신이 맑아지고 물맛이 좋아서 감로수라 하였다고 한다. 최근에 이곳에 큰 절을 세워 탑골사라 하고 있다.¹⁹⁾

이 설화는 석탑사의 유래를 알려 주는 자료이다. 내용에서 보듯이 이곳은 동해가 훤히 보이고 일출이 아름다운 곳임을 알 수 있다. 망일암이 있을 만한 바로 그런 장소이다. 따라서 탑골이라는 지명은 망일암이 폐사되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의해 불리어졌던 이름이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백운산 소학대를 수미산의 꼭대기로 상징하고 그 위에 각 층마다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을 상징하는 삼층석탑을 세워 이곳을 미륵보살이 머물러 있는 도솔천, 즉 미륵정토의 세계로 장엄하고자 의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신라 사람들이 영산(靈山)으로 생각하던 금오산 능선의 정상부에 많은 탑을 세운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²⁰⁾

아무튼 선여사지와 망일암 전승 자료에 의하면 두 절의 창건은 모두 원효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척판암(擲板庵) 창건 설화

장안읍 장안리에 있는 장안사 남쪽 봉우리 밑에 척판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옛날에는 암자명을 척반암(擲盤庵)이라고 불렀다. 이 척반암의 창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한다.

19) 기장군지편찬위원회, 2001, 『기장군지』 하, 기장군청, 414쪽.

20) 拙稿, 앞의 논문, 323쪽.

신라시대 원효대사는 이곳에 암자를 짓고 수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원효대사가 중국의 장안성을 살펴보았다. 마침 그곳 종남산 기슭 운제사 대웅전에서는 천여 명의 승려들이 예불을 드리고 있었는데, 원효대사는 대웅전의 대들보가 썩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대사는 위급한 사태를 알리고자 옆에 있던 소반에다 ‘해동원효척반구중(海東元曉擲盤救衆)’이라는 여덟 자를 적어서 하늘 높이 던졌다. 던져진 소반은 운제사의 대웅전 앞뜰 위 공중에서 맴돌았다. 막 예불을 마친 승려들은 이 신기한 광경을 구경하려고 모두가 대웅전 앞뜰로 나왔다. 바로 그때 대웅전이 무너지고 공중을 맴돌던 소반도 땅에 떨어졌다. 깜짝 놀란 승려들은 땅에 떨어진 소반에 해동에 있는 원효가 소반을 던져 무리를 구한다는 여덟 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신라의 원효대사임을 알게 되었다. 장안성내에 있던 천여 명의 승려들은 이로 인하여 길을 떠나 양산군 천성산 석굴에 있던 원효대사를 만나게 되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원효대사의 오묘한 법문과 가르침을 받고서 모두 성인이 되었으며, 모두가 끝내 이곳에서 열반을 하였는데 열반한 육신은 그대로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²¹⁾

그래서 이 산은 천 명의 성인들이 나왔다는 뜻으로 천성산이라 하였고 천성산의 바위들은 그 성인들의 변신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원효가 여덟 자를 적은 소반을 던졌던 곳에 암자를 지어 척반암이라 하였고, 그 아래쪽에 큰 절을 세워 장안사라 하였다고 한다.

원효가 태어나고 활동했던 시기는 동북아시아의 교학 불교가 가장 화려하게 꽃핀 시기였고, 그의 탄생을 전후하여 걸출한 인

21) 「唐新羅國皇龍寺元曉傳」 『宋高僧傳』 卷 4(『大正藏』 卷 50, 730쪽 上)
양산군지편찬위원회, 1986, 『양산군지』, 1862~1863쪽

물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 종파의 거장이었을 뿐인데 비해 원효는 대승불교의 모든 종파를 아우른 '팔종(八宗)의 조사'로 일컬어졌을 만큼 교학의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루 체득하고 있었다. 불교의 근본진리를 깨친 그의 관점에서는 각 종파의 교리가 실은 하나의 근본원리의 다양한 변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원효 교학의 특징을 회통불교, 화쟁사상이라 일컫는다.

원효가 쓴 『금강삼매경론』은 『금강삼매경』을 해설한 것인데 이 논서가 중국에 전해지자, 역경삼장(譯經三藏)들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아마도 보살이 썼을 것”이라 하여 ‘소’가 아닌 ‘논’으로 승격시켜 대장경에 편입시켜서 『금강삼매경소』가 아니라 『금강삼매경론』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우리 불교사상가의 저술이 ‘논’으로 불린 사례는 오직 원효의 저술뿐이며, 중국의 어떤 불교사상가도 감히 이 책을 주석하지 않아 원효의 저술이 유일하다. 이것은 중국 불교사상가들이 원효를 인도의 마명(馬鳴), 용수(龍樹), 무착(無着), 세친(世親)과 같은 대보살의 반열로 평가했다는 의미이다.

한편 마명이 쓴 『대승기신론』을 주석한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도 중국에 전해졌는데 중국의 정영사(淨影寺) 혜원(慧遠, 523~592)의 주석서인 『정영소(淨影疏)』와 중국 화엄종의 법장현수(法藏 賢首)의 『현수소(賢首疏)』와 함께 ‘기신론삼소(起信論三疏)’로 꼽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원효에 대한 중국 측의 평가를 감안해본다면 이 설화는 원효의 저술 및 신라에서의 구도와 교화 활동이 널리 알려진 후에 원효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다소 신비화하여 설화를 형성시킨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만큼 중국 불교계에서도 원

효에 대해 존경해마지 않는 승려 집단이 있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Ⅲ. 『삼국유사』 혜통향룡조에 나타난 기장지역의 불교

기장군에 있는 장안사는 『기장현읍지』의 불우(佛宇)조에 “장안사는 불광산에 있고, 남쪽에 삼각산이 있고, 현에서 북녘 40리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기장현에서 예로부터 있던 4대사찰 중에서는 그 서열이 끝이지만, 선여사·취정사는 폐사되었고, 안적사는 최근에 와서 중창되었으므로 현재는 장안사가 남아 있는 유일한 고찰이다.

이 절은 신라 문무왕 13년(673)에 원효가 척반암과 함께 창건하여 처음에는 쌍계사라 하였는데, 신라 애장왕 10년(809) 장안사라고 고쳤다. 사명을 고친 유래는 『삼국유사』에 전하는 혜통의 독룡을 조복시키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기장지역 불교의 성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옮겨보면,

(상략) 당나라 황실에서 공주가 병이 나서 고종은 삼장에게 치료해 주기를 청했더니 삼장은 혜통을 자기 대신으로 천거했다. 혜통은 명령을 받고 따로 거쳐하며 흰 콩 한말을 은그릇 속에 넣고 주문을 외우니 그것이 변해서 흰 갑옷을 입은 신병(神兵)이 되어 병마를 쫓았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다시 검은 콩 한말을 금 그릇에 넣고 주문을 외우니 그것이 변해서 검은 갑옷 입은 신병이 되었다. 두 색의 신병을 합하여 병마를 쫓으니 문득 교룡(蛟龍)이 달아나고 병이 드디어 나았다.

용은 혜통이 자기를 쫓았음을 원망하여 본국 문잉림으로 가

서 인명을 심하게 해쳤다. 정공이 사신으로 가서 혜통을 청하니 인덕 2년 을축(665)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용을 쫓아버렸다. 용은 또 정공을 원망하여 이에 버드나무로 태어나 정공의 문밖에 나 있었다. 정공은 이 나무를 무척 사랑하여 효소왕 때 신문왕의 장례 길을 닦는데 이 버드나무가 가로막고 있어 베려하니 베지 못하게 막았다. 이에 왕이 그를 베어 죽이고 그 집을 물었다. (중략)

왕녀에게 병이 나서 혜통을 불러 치료케 하니 병이 나았으므로 왕은 크게 기뻐했다. 혜통은 말했다. “정공은 독룡의 해를 입어 애매하게 나라의 형을 받았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뉘우쳐서 이에 정공의 처자에게 죄를 면해 주고 혜통을 국사로 삼았다. 용은 이미 정공에게 원수를 갚자 기장산 [달음산]에 가서 웅신(熊神)이 되어 해독을 끼침이 더욱 심하니 백성들이 많이 괴로워했다. 혜통은 산속에 이르러 용을 달래어 불살계(不殺戒)를 주니 그제야 웅신의 해독이 그쳤다.(하략)²²⁾

이 사료에서 보이는 혜통과 독룡의 끈질긴 악연은 『삼국유사』의 어느 이야기보다 흥미롭다. 그런데 기장지역에 전하는 설화에서는 용을 퇴치하는 과정이 좀 더 자세하다. 독룡을 퇴치하기 위하여 혜통이 친히 기장현에 왔는데, 독룡은 동해용왕에게 빌고서 이곳 청룡등에 숨어 있었다. 혜통은 독룡이 숨어 있는 것을 알고 밀단법(密壇法)으로써 독룡을 달래면서 독룡이 다치지 않고 도망칠 수 있도록 청룡등의 기슭을 헐어 주었다. 그러자 독룡은 황금송아지로 변해 또 달아나 기장산 바위굴에 곶으로 화신하여 숨었는데, 혜통 스님은 다시 불살계(不殺戒)의 자비설법을 베풀어 독룡을 교화하였다. 그때 혜통 스님이 청룡등의 기슭을 헐어 놓게 되자 두 갈래 쌍계는 한 갈래 계곡수로 변하게 되

22) 『三國遺事』 卷 5 神呪 6 惠通降龍.

었다. 이로 인하여 쌍계사를 장안사로 고쳤다고 한다.

이 설화는 기장의 장안사 일대에서 아주 오랫동안 구전되었던 이야기인 듯하다. 왜냐하면 기장군의 지명을 살펴보면 다른 읍면에는 용(龍)과 관련된 이름이 없는 반면 유독 장안읍에만 ‘용’자가 붙은 지명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장안천 가에는 기룡리(奇龍里), 용천리(龍川里), 반룡리(盤龍里)라는 마을 이름이 남아 있으며, 장안천은 옛날에는 용천(龍川)이라 불렸다.²³⁾ 또 장안읍 오리(五里)에는 대룡(大龍)마을이 있다.²⁴⁾ 용소리(龍沼里)에는 용소천이 흐르고, 용담(龍潭)이 있는 용담골도 있다.²⁵⁾

혜통은 신문왕, 효소왕대에 활동했던 밀교 승려인데 신문왕의 등창을 주술로써 고쳐주어 왕의 신임을 얻었다.²⁶⁾ 그러나 효소왕대 접어들면서 그를 후원하던 정공(鄭恭)이라는 관리가 주살되면서 같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장안사에 얽힌 설화를 분석해 보면 이처럼 신라통일기 왕실에서 배제되면서 차츰 대중 속으로 들어가 밀교를 전한 혜통이 독룡을 조복시키는 향룡(降龍) 신앙이 담겨있다. 이때의 독룡이라는 존재는 현상적인 용이라는 동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의술로는 치유하기 어려운 독한 병마를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혜통의 향룡 신앙은 바로 질병을 치유하는 기능인 것이다.

그런데 사료 상에서 살펴보면, 혜통의 밀교는 이처럼 주기능이 병을 고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 제병밀교(除病密敎)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그 당시 같은 밀교로서 종파를 형성한 신인종과

23) 기장군지편찬위원회, 2001, 『기장군지』 하, 기장군청, 77쪽.

24) 기장군지편찬위원회, 위의 책, 88쪽.

25) 기장군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91쪽.

26) 『三國遺事』 卷 5 神呪 6 惠通降龍 / 『三國史記』 卷 8 神文王 4年 3月.

는 그 기능에서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신인종은 신라 중대 왕권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밀교의 여러 가지 샤먼적 기능 중에서도 전쟁 수행과정에서 특히 절실한 천문, 기상적 측면을 강조하였던 종파였다.²⁷⁾ 혜통의 경우는 신문왕대 신충봉성사를 창건하는 등 왕실의 신임을 얻었지만, 효소왕대 비록 그가 국사의 위치에 올랐다 하더라도 효소왕 즉위 초의 정공과 같은 제병밀교를 지지하던 세력의 몰락으로 더 이상 중대왕권과 관련을 가질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다음의 사료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제 화상이 무위의 진수를 전하여 속세를 두루 다니며 사람들을 구하고 만물을 감화시키고 겸하여 숙명(宿命)의 명지(明智)로서 절을 세워 원(怨)을 푸니 밀본(密本)의 교풍이 이때에 떨쳤다.²⁸⁾

혜통은 효소왕대 접어들면서 더 이상 중앙권력과는 가까이 하지 않고 일반 민들 속에서 그의 제병밀교를 펼쳤던 것으로 보인다. 웅신으로 변하여 기장산에 숨어들어간 독룡을 조복시켰다는 기록을 통하여 기장지역에 퍼진 질병을 고치기 위해 혜통이 남쪽으로 내려왔고, 제대로 된 의술을 접하지 못했던 기장지역 일반 민들에게 주술을 행하여 심각한 질병을 치유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혜통이 기장지역에 왔다는 것은 신라 지방사회로 제병밀교가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가 세력을 확장할 때 각지의 토착신앙과의 융합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에 밀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⁹⁾ 즉

27) 김재경, 1978, 「신라의 밀교수용과 그 성격」 『대구사학』14, 대구사학회, 16쪽.

28) 주 26) 참조.

밀교는 각지 토착신앙이 가진 제신(諸神)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가지고 토착신앙과 접하면서 지방사회로 파급되었을 것이다. 해통의 제병밀교 역시 병을 치료하는 특화된 역할을 통하여 기장지역에 뿌리 내렸다고 생각된다.

IV. 전승 자료를 통해 본 기장지역 불교의 성격

앞에서 기장지역 사찰 관련 전승 자료를 살펴보았다. 모든 자료에서 보듯이 설화의 주인공은 하나같이 원효대사이다.

흥미로운 점은 기장지역과 인근 양산지역, 울산지역의 사찰들은 거의 대부분 원효가 창건했거나 수행하던 장소였다고 전한다는 것이다. 즉 기장의 선여사, 장안사, 안적사, 취정사, 옥정사 등과 양산의 내원사, 원효암, 미타암, 안적암, 홍룡사, 그리고 울산의 반고사, 운흥사 등이 그것이다.

이들 사찰 중에는 원효가 직접 수행했던 장소라든지 사찰의 창건에 관여했던 장소도 물론 있겠지만 이 모든 절을 원효가 창건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원효의 교학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양대 불교사상을 화쟁(和諍)하겠다는 통합의지를 존경하는 많은 승려들에 의해 원효의 사상은 지방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이들이 왕경과 떨어진 곳에 사찰을 세우면서 원효가 창건했다는 설화를 전승시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기장지역의 전승 자료에서는 원효의 교화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분이 내재되어 있을까? 원효의 저술 활동에서 알 수 있는 불교사상가로서의 면모는 가히 당대 세계 최고의 사상가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

29) 松長有慶(허일범 역), 1990, 『밀교역사』, 경서원, 22쪽.

요한 것은 그가 깨달았던 내용을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종교문화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하층 민중에게 널리 전하고자 했던 그의 보살행에 있다고 생각한다.

원효가 실천한 보살행은 아마도 그와 교유했던 당시의 승려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혜숙, 혜공, 대안 등 일군의 승려들은 집단을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각각 민중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불교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가불교적인 권위에 치중했던 당시 불교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한 활동은 원효에 이르러 더욱 크게 발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상략) 원효는 이미 계(戒)를 잃어 설총을 낳은 후로는 속인(俗人)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스스로 소성거사(小姓居士)라고 이름 했다. 그는 우연히 광대들이 가지고 노는 큰 박을 얻었는데 그 모양이 괴상했다. 원효는 그 모양을 따라 도구를 만들어 『화엄경(華嚴經)』 속에 말한, “일체의 무애인(無碍人)은 한결 같이 죽고 사는 것을 벗어난다.”는 문구를 따서 이름을 무애(無碍)라 하고 계속하여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어느 날 이 도구를 가지고 수많은 마을에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교화시키고 읊다가 돌아오니, 이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과 어리석은 무리들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고,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을 부르게 하였으니 원효의 교화야말로 참으로 컸다 할 것이다.³⁰⁾

원효와 마찬가지로 민중과 함께 한 혜숙, 혜공, 대안 등은 모두 계율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당시 승려들이 선호했던 당나라 유학도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종파에 속하지도 않았

30) 『三國遺事』 卷 4 意解 5 元曉不羈.

다.³¹⁾

원효의 민중지향적 성격을 염두에 두고 기장지역의 사찰 관련 전승 자료를 분석해보면 원효가 지역민들을 교화할 때 관음과 미륵에 대한 믿음을 널리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다.

즉 옥정사 관련 전승설화에서 관음보살이 나오고, 탑골사 설화에서는 미륵부처와 관세음보살이 나온다. 설화에 등장하는 관음과 미륵을 통하여 원효는 어떤 방식으로 대중들을 교화하였는지 추정해보기로 한다.

원효는 여래장 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불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열반경』, 『대승기신론』 등에 근거하여 모든 중생이 불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신유식학파(법상종)에서 주장하던 일천제(一闡提)가 성불할 수 없다는 논리를 타파하고, 인(因)으로서의 불성을 누구나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원효는 중생이 자신들의 불성을 믿지 않고 미혹에 빠져 있으므로 부처의 자비력에 의지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바로 아미타불에 귀의하도록 하였던 것이다.³²⁾

원효가 활발한 교화 활동을 벌인 시기는 신라 사회가 중대(中代)로 넘어가던 시기였다. 이 시기 불교는 아미타신앙의 확산으로 그 신앙적 기반이 확대되었는데, 일반 민들이 본격적으로 불교 신앙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³⁾

아미타신앙은 아미타정토왕생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경전

31) 김동윤, 1988, 「신라 아미타신앙의 민중지향적 전개와 그 배경」 『경주사학』 7, 4~5쪽.

32) 김영미, 1994, 「신라통일기 불교계의 동향과 추이」 『역사와 현실』 14, 한국역사연구회, 27~28쪽.

33) 정계규, 1994, 「統一新羅의 佛敎信仰 變遷 小考-密敎의 性格을 中心으로-」 『한국고대사』 3, 단국대학교 사학회, 91쪽.

에 대해 많이 이해하지 못해도 극락으로 왕생할 수 있다는 신앙이었다. 아미타신앙은 일반 민들에게까지 확산된 믿음이었으므로 그 사회적 영향은 매우 컸다.³⁴⁾

그런데 기장지역의 원효 관련 전승 자료에서는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인 관음보살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관음과 아미타는 엄격한 의미에서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다. 아미타와 관음이 주존(主尊)과 보처(補處)로 결합된 것은 아미타 경전들에서지만 바로 관음보살이 아미타정토왕생신앙에 결부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법화경』이나 『수능엄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현세이익적인 구제가로서의 관음이 어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³⁵⁾

우리나라에서 관음보살이 서방왕생으로 인도하는 매개자로서 나타나는 것은 신라 문무왕 때였다.

(상략) 엄장은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 물러나 그 길로 원효법사(元曉法師)의 처소로 가서 진요(津要)를 간곡하게 구했다. 원효는 삼관법(鍾觀法)을 만들어 그를 지도했다. 엄장은 이에 몸을 깨끗이 하고 잘못을 뉘우쳐 스스로 꾸짖고, 한 마음으로 도를 닦으니 역시 서방정토로 가게 되었다. 삼관법은 원효법사의 본전(本傳)과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속에 있다.

그 부인은 바로 분황사의 계집종이니, 대개 관음보살 십구응신(十九應身)의 하나였다.(하략)³⁶⁾

이 이야기는 원효가 분황사에 머물던 시기의 일로서 광덕과 엄장은 원효에게 정토왕생의 수행에 대한 지도를 받았다. 그런데

34) 정제규, 위의 논문, 95쪽.

35) 문명대, 1969, 「경덕왕대의 아미타 조상문제」 『이홍직박사 회갑기념 한국사학논총』, 663쪽.

36) 『三國遺事』卷 4 感通 5 廣德嚴莊.

이들의 서방왕생을 도왔던 이가 관음보살의 십구응신 중 하나인 광덕의 처였던 것이다. 즉 원효가 베풀었던 아미타신앙의 내용에는 중생을 정토로 왕생하게 하는 데 관음보살이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 설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광덕의 처가 분황사의 노비였으므로 그와 혼인한 광덕이나 그의 친구인 엄장도 신분이 낮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는 경덕왕대 강주(지금의 진주) 지역의 계집종이었던 옥면이 염불을 통하여 서방극락정토에 현신성불(現身成佛)했다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³⁷⁾ 아미타신앙은 이처럼 사회적인 신분이 아주 낮은 계층에까지 널리 파급되었음을 여러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원효는 일반 민에게 이러한 아미타정토왕생신앙을 고취시켜주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원효와 관음보살과의 관계는 기장지역의 전승 자료뿐만 아니라 다음의 자료에서도 잘 나타난다.

(상략) 그 후에 원효법사(元曉法師)가 뒤를 이어 와서 여기에 예(禮)를 올리려 하였다. 처음에 남쪽 교외(郊外)에 이르자 논 가운데에서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벼를 베고 있었다. 법사(法師)가 희룡삼야 그 벼를 달라고 청하니, 여인은 벼가 잘 영글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또 가다가 다리 밑에 이르니 한 여인이 월수백(月水帛)을 빨고 있다. 법사가 물을 달라고 청하자 여인은 그 더러운 물을 떠서 바친다. 법사(法師)는 그 물을 옆질러 버리고 다시 냇물을 떠서 마셨다. 이때 들 가운데 있는 소나무 위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그를 불러 말한다. “제호 스님은 쉬십시오.” 그리고는 갑자기 숨고 보이지 않는데 그 소나무 밑에는 신 한 짝이 벗겨져 있었다. 법사가 절에 이르자 관음보살

37) 『三國遺事』 卷 4 感通 7 郁面婢 念佛 西昇

상(觀音菩薩像)의 자리 밑에 또 전에 보던 신 한 짝이 벗겨져 있으므로 그제야 전에 만난 성녀(聖女)가 관음의 진신(眞身)임을 알았다.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관음송이라 했다. 법사는 성굴(聖窟)로 들어가서 다시 관음의 진용을 보려고 했으나 풍량이 크게 일어나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떠났다. (하략)³⁸⁾

『삼국유사』에 전하는 이 설화는 의상이 낙산에 가서 먼저 관음보살의 진신(眞身)을 친견한 뒤에 원효가 이곳을 찾았다는 것인데, 의상이 성스러운 모습의 관음보살을 보았던 것에 비해서 원효는 일반 민의 모습으로 나타난 관음보살을 친견하였다. 의상의 교화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감안한다면 의상은 관음보살의 실체를 보았고, 모든 것에 무애한 원효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여 인간에게 감응했던 관음보살의 방편을 보았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 같다. 즉 두 사람은 모두 관음보살을 만나 깨달음을 얻었지만 만남과 깨달음의 방법은 서로 달랐던 것이다. 이러한 설화에서도 원효의 일반 민들과의 깊은 교감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런데 원효는 단순히 개개인에 대한 교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결사(信仰結社)를 조직하여 그들을 이끌어 나갔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다음 사료를 살펴보자.

(상략)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죽었는데 그때 원효(元曉)가 고선사(高仙寺)에 있었다. 원효는 그를 보고 맞아 예를 했으나 사복(蛇福)은 답례도 하지 않고 말했다. “그대와 내가 옛날에 경(經)을 읽고 다니던 암소가 이제 죽었으니 나와 함께 장사지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원효는 “좋다”하고 함께 사복의 집

38) 『三國遺事』 卷 3 塔像 4 洛山二大聖 觀音正趣調信

으로 갔다. 여기에서 사복은 원효에게 포살(布薩)시켜 계(戒)를 주게 하니, 원효는 그 시체 앞에서 빌었다. “세상에 나지 말 것이니, 그 죽는 것이 괴로우니라. 죽지 말 것이니 세상에 나는 것이 괴로우니라.” 사복은 그 말이 너무 번거롭다고 하니 원효는 고쳐서 말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 괴로우니라.” (중략) 말을 마치고 띠 풀의 즐거움을 뽐으니, 그 밑에 명랑하고 청허(淸虛)한 세계가 있는데, 칠보(七寶)로 장식한 난간에 누각이 장엄하여 인간의 세계는 아닌 것 같다. 사복이 시체를 업고 속에 들어가니 갑자기 그 땅이 합쳐 버린다. 이것을 보고 원효는 그대로 돌아왔다.

후세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금강산(金剛山) 동남쪽에 절을 세우고 절 이름을 도량사(道場寺)라 하여, 해마다 3월 14일이면 점찰회(占察會)를 여는 것을 상례(常例)로 삼았다. (하략)³⁹⁾

사복이라는 인물의 정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나 흥륜사 금당에 안치된 십성(十聖) 가운데 사복의 이름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⁴⁰⁾ 사복은 당시 원효와 함께 일반 민을 교화하던 승려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료에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도량사를 중심으로 일반 민들의 신앙결사가 형성되었고, 그들은 절을 세우고 점찰법회를 행하였으며, 원효는 그들 집단을 종교적·신앙적으로 이끌어주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⁴¹⁾ 이러한 결사의 성격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는 자료는 『삼국유사』 권 3 탑상 4의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조이다. 화엄종 신앙과 더

39) 『三國遺事』 卷 4 意解 5 蛇福不言.

40) 『三國遺事』 卷 3 興法 3 東京興輪寺金堂十聖. 여기에는 사과(蛇巴)로 나온다.

41) 김문경, 1994, 「三國·新羅時代의 佛教 信仰結社」 『한국고대사』 3, 단국대학교 사학회, 349~350쪽.

불어 오대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많은 결사가 형성되어 국가를 도울 행사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화장사(華藏寺)와 법륜사(法輪社), 진여원(眞如院)과 화엄사(華嚴社), 관음방(觀音房)과 원통사(圓通社), 지장방(地藏房)과 금강사(金剛社), 미타방(彌陀房)과 수정사(水精社), 나한당(羅漢堂)과 백련사(白蓮社) 등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의 사찰과 하나의 신앙결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후대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신앙결사가 사찰에서 거행하는 많은 불사의 지원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도 수긍이 간다.⁴²⁾

도량사와 점찰회를 열었던 신앙결사와의 관계처럼 시대가 좀 더 흘렀지만 대산오만진신조에는 사찰과 민간의 신앙결사가 결합한 형태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기장지역에도 원효 당시 또는 원효 이후 그의 학풍을 존경해마지 않았던 승려집단에 의해 기장지역의 여러 사찰에도 이와 같은 민간신앙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이들 신앙결사는 전승 자료의 내용으로 볼 때 관음보살을 정토왕생의 매개자로 한 아미타정토왕생신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임이 아닐까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 원효가 미륵불을 친견했다는 탐골사 관련 설화의 내용에서 원효와 미륵신앙과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원효는 미륵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미륵상생경중요』, 『미륵상생경소』 등 미륵과 관련된 저술을 남겼으며, 미륵을 부르지만 해도 도솔천에 왕생할 수 있다고 일반 민에게 가르쳤다. 원효 당시에는 이제 막 정토신앙이 형성되는 시점이었으므로 미타정도와 미륵정도가 구별 없이 일반 민들의 신앙대상으로 존송되었다. 그것은 창원의 백월산(白月山) 남사(南寺)의 금당에 미륵

42) 김문경, 위의 논문, 350쪽.

존상이, 강당에 아미타존상이 각각 안치되었다는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⁴³⁾

물론 원효는 아미타신앙을 권하기 위해서 『유심안락도(遊心安樂道)』에서 극락정토가 도솔정토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의 왕생도 용이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⁴⁴⁾

그렇지만 원효는 아미타극락정토와 미륵도솔정토를 구별하지 못하는 일반 민들에게 미타와 미륵 관계 경전을 해석하여 얻은 그의 정토관(淨土觀)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 민들은 원효의 교화에 따라 미타나 미륵을 그리면서 그들의 일상 속에서 염불수행을 행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으로 전승 자료를 통해서 원효와 관련된 기장지역 불교신앙의 모습을 단편적이거나 살펴보았다.

원효는 의상과는 달리 그의 법맥을 잇고 있는 제자들의 존재가 보이지 않지만, 그의 정토신앙은 신라 불교대중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것은 왕경인 경주에 한정되지 않고 각 지역으로 파급되었을 것이다. 원효의 정토신앙은 아미타정토왕생신앙과 미륵정토왕생신앙을 모두 포괄하고 있었으며, 개개인의 염불수행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찰을 중심으로 하여 민간신앙결사를 형성하여 염불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기도 하였을 것이다.

원효 사후에도 원효를 받드는 화엄종 비주류 계통의 승려들이 신라통일기 이후에도 고려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 의해 원효의 사상은 지방사회까지 두루 미치고 있었을 것이다. 기장지역에도 원효의 학풍을 존경하였던 승려집단이 있어 이들에 의해 기장의 사찰들이 모두 원효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설화가 전승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기장군

43) 『三國遺事』 卷 3 塔像 4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

44) 안계현, 1962, 「원효의 미륵정토왕생사상」 『역사학보』 17·18합집, 271쪽.

지역의 사찰들은 이후에도 폐사될 때까지 원효의 종교적·신앙적 경향을 면면히 이어나갔던 것 같다.⁴⁵⁾

한편 『삼국유사』 혜통항룡조에도 신라통일기 기장지역 불교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된다. 제병밀교의 대표자인 혜통이 기장으로 와서 당시 기장 백성들을 괴롭히던 독룡을 조복시켰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혜통이 당시 기장에 퍼져 있던 치유하기 어려운 병마를 제거해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효소왕 이후 기장지역에는 혜통의 제병밀교가 널리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장 장안사는 처음에 쌍계사라는 이름으로 원효가 창건하였고, 혜통이 가장으로 온 이후에 장안사로 사찰의 명칭을 바꾸었다는 전설로 미루어보면 원효의 정토신앙이 이 지역까지 미쳐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고, 뒤이어 혜통의 제병밀교가 이 지역에 전파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로써 기장지역 불교신앙은 보다 다양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아미타정토신앙의 확산과 관음신앙, 제병과 관련한 밀교가 그 당시 이 지역 불교의 특색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그와 함께 국가불교의 성격을 띤 왕경과는 다른 이 지역 특유의 토속성 짙은 불교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V. 맺음말

이상으로 기장지역에 전해지는 전승 자료를 통하여 신라통일기 기장지역 불교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장지역 각종 전승 자료는 사실 설화의 원형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알 수 없어

45) 拙稿, 앞의 논문, 239쪽.

당시 불교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자료들은 어느 정도는 당시 불교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장지역 불교 관련 전승 자료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자료가 원효와 관련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기장지역이 원효의 사상과 교화 활동이 널리 퍼진 곳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원효는 당대 최고의 불교사상가였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깨달았던 내용을 하층 민중에게 널리 전하고자 했던 그의 보살행이었다. 원효와 교유했던 혜숙, 혜공, 대안 등 일반 민들에게 불교를 알린 교화승들은 당시 불교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으며 원효에 이르러 더욱 크게 발전하였다.

원효가 일반 민들을 교화한 주된 내용 가운데는 관음보살에 대한 신앙과 아미타정토신앙, 미륵정토신앙 등이 있었다. 특히 전승 자료에서 자주 등장하는 관음보살은 현세의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서방 왕생으로 인도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던 것 같다. 또한 미륵경전 관계 저술에서도 나타나듯이 원효는 일반 민들에게 미륵정토 왕생에 대해서도 소개하였을 것이다. 당시에는 막 정토신앙이 형성되는 시점이었으므로 아미타정토와 미륵정토가 구별 없이 일반 민들의 신앙대상으로 존송되었다. 원효는 이러한 민들에게 아미타와 미륵을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일상에서 정토를 꿈꾸면서 수행하도록 지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원효는 단순히 개개인에 대한 교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결사를 조직하여 그들을 이끌어 나갔던 것으로 짐작된다. 즉 『삼국유사』의 사복과 원효의 이야기에서 사복 사후 도량사라는 절이 창건되고 집찰법회를 상례로 개최하였으며 이러한 사람들을 원효가 종교적, 신앙적으로 이끌어주었던 것으로 보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앙결사는 세월이 흐르면서 더 발전하여 하나의 사찰과 하나의 신앙결사가 서로 연결되어 사찰에서 거행하는 많은 불사를 지원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기장지역의 여러 사찰에도 이와 같은 민간신앙결사가 이루어져 조직적으로 정토왕생을 위한 염불수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편 장안사와 관련된 설화에는 혜통이 기장으로 와서 독룡을 교화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지방사회로 제병밀교가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룡을 조복시켰다는 것은 당시의 의료기술로 해결할 수 없었던 심각한 질병을 치유해주었다는 것을 뜻하므로 일반 민들에게는 혜통의 제병 주술이 크게 각광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밀교는 각지 토속신앙이 가진 제신(諸神)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가지고 토속신앙과 접하면서 지방사회로 파급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전승 자료들을 통해 보면, 원효의 정토신앙이 널리 전해지면서 기장지역 일반 민들을 교화한 바탕 위에 뒤이어 혜통의 제병밀교가 이 지역에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당시 기장지역 불교신앙은 염불 수행을 통한 아미타정토신앙의 확산 및 관음신앙, 미륵정토신앙과 함께 주술을 통한 제병과 관련한 밀교가 지역 불교의 특색으로 자리 잡으면서 인근 지역과는 또 다른 다양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와 함께 국가불교의 경향이 강한 왕경과는 다른 이 지역 특유의 토착 신앙과 결합된 토속성 짙은 불교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 『三國遺事』
- 『大正新脩大藏經』
- 양산군지편찬위원회, 1986, 『양산군지』, 1065~1098쪽, 1815~1868쪽, 양산군청
- 松長有慶(허일범 역), 1990, 『밀교역사』, 19~29쪽, 경서원
-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구기장군향토지』, 287~333쪽, 재부구기장군향인회
- 부산대학교 박물관·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8, 『기장군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158~183쪽,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기장군지편찬위원회, 2001, 『기장군지』 상, 437~478쪽, 기장군청
- 기장군지편찬위원회, 2001, 『기장군지』 하, 37~188쪽, 389~424쪽, 기장군청
- 안계현, 1962, 「원효의 미륵정토왕생사상」 『역사학보』 17·18합집, 245~275쪽, 역사학회
- 문명대, 1969, 「경덕왕대의 아미타 조상 문제」 『이홍직박사회갑기념 한국사학논총』, 647~686쪽, 이홍직박사회갑기념사업회
- 김동운, 1988, 「신라 아미타신앙의 민중지향적 전개와 그 배경」 『경주사학』 7, 1~16쪽, 경주사학회
- 김재경, 1978, 「신라의 밀교 수용과 그 성격」 『대구사학』 14, 1~28쪽, 대구사학회
- 김문경, 1994, 「삼국·신라시대의 불교신앙결사」 『한국고대사』 3, 337~360쪽, 단국대학교 사학회
- 김영미, 1994, 「신라통일기 불교계의 동향과 추이」 『역사와 현실』 14, 12~32쪽, 한국역사연구회
- 정제규, 1994, 「통일신라의 불교신앙변천소고 -밀교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 3, 89~114쪽, 단국대학교 사학회
- 조원영, 1996, 「부산의 고미술 -불교미술자료를 중심으로-」 『향도부

- 산』 13, 225~288쪽,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 황 구, 2007, 「철마면의 선여사지에 대한 고찰」 『철마면지』, 612~622쪽, 철마면지편찬위원회
 - 구모룡, 2009, 「차성가에 나타난 장소의 시학」 『기장문화』 6, 47~58쪽, 기장문화원
 - 이봉기, 2009, 「기장군의 불교폐사원지」 『기장문화』 6, 91~122쪽, 기장문화원
 - 조원영, 2011, 「기장군 정관면 석탑사 탑재의 형식 분석」 『항도부산』 27, 315~360쪽,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투 고	심 사	완 료
2014.10.31	2014.12.5	2014.12.12

【국문초록】

이 글은 기장지역에 남아 있는 사찰의 창건 설화나 그 외의 전승 자료를 통하여 신라통일기 기장지역의 불교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다. 기장지역 불교 관련 전승 자료는 크게 원효와 혜통에 관련된 것이다. 원효와 관련된 자료는 안적사 창건 설화, 옥정사 관련 전승 설화, 선여사 관련 전승 자료, 척관암과 장안사 창건 설화 등이 있고, 혜통과 관련된 자료는 장안사의 절 이름을 바꾸게 된 내용을 담은 설화가 전한다.

신라통일기 기장지역 불교 관련 전승 자료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자료가 원효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당대 최고의 불교사상가였던 원효가 기장지역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원효의 사상과 그가 제시한 불교신앙이 기장지역에 널리 전파되었음을 의미한다.

원효가 일반 민들을 교화한 주된 내용 가운데는 관음보살에 대한 신앙과 아미타정토신앙, 미륵정토신앙 등이 있었다. 특히 전승 자료에서 자주 등장하는 관음보살은 현세의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아미타정토왕생을 인도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던 것 같다. 한편 원효는 미륵경전을 해석한 저술도 남긴 것으로 보아 일반 민들에게 미륵정토왕생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효 당시에는 막 정토신앙이 형성되는 시점이었으므로 일반 민들은 아미타정토와 미륵정토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신앙 대상으로 존송하였으므로 원효 또한 그들에게 특별한 구별 없이 일상 속에서 정토를 꿈꾸며 수행하도록 지도하였을 것이다.

원효는 이러한 일반 민들을 교화하는 방법으로 개개인에 대한 교화도 행하였지만 신앙결사를 조직하여 그들을 이끌어 나갔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나의 신앙결사는 하나의 사찰과 연결되어 사찰에서 거행하는 많은 불사를 지원하는 조직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기

장지역의 여러 사찰에도 이와 같은 민간 신앙결사가 이루어져 조직적으로 정토왕생을 위한 염불수행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한편 효소왕대 기장으로 와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해독을 끼쳐 괴로움을 주던 독룡을 교화하였다는 혜통의 행적이 전한다. 독룡이라는 존재는 형상적인 용이라는 동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의술로는 치유하기 어려운 난치병을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혜통이 악한 용을 교화하였다는 것은 바로 질병을 치유하는 기능이었던 것이다.

사료 상에 전하는 혜통의 행적을 보면 병을 고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 제병밀교의 성격을 갖는다. 손을 쓸 수 없는 심각한 질병에 고통 받던 기장지역의 민들에게는 혜통의 제병 주술이 크게 각광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밀교는 각지의 토속신앙이 가진 여러 신들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토속신앙과 접하면서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기장지역에 남아 있는 사찰 관련 전승 자료를 통해 보면 원효의 아미타정토왕생신앙과 미륵정토왕생신앙이 널리 전해지면서 이 지역의 일반 민들을 교화한 바탕 위에 뒤이어 혜통의 제병밀교가 이 지역에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신라통일기 기장지역 불교신앙은 염불 수행을 통한 아미타정토신앙의 확산 및 관음신앙, 미륵정토신앙과 함께 주술을 통한 제병과 관련한 밀교가 기장지역 불교의 특색으로 자리 잡으면서 인근 지역과는 또 다른 다양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국가불교의 경향이 강한 왕경과는 다른 이 지역 특유의 토착신앙과 결합된 토속성 짙은 불교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 원효, 기장지역, 정토신앙, 관음보살, 혜통, 제병밀교

【Abstract】

**Buddhism of Gijang during the Period of Unified
Silla Kingdom by an Analysis of Folktales**

Jo, one-young / Hapcheon Museum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lluminate Buddhism of Gijang by analyzing the founding myths or the other folktales of temples of this area during the period of Unified Silla Kingdom. During this period, the dominant characteristic of the folktales of Buddhism is that all materials are related to the monk, Wonhyo. This means that the ideas of Wonhyo were widely spread in this area.

The faiths propagated to the people by Wonhyo are the sects of Avalokitesvara, Amitabha, Maitreya, etc. The way Wonhyo enlightened the people of Gijang was the individual as well as the collective edification by an organization of faith groups. Faith groups would have been an organization that supported the works of temple.

On the other hand, the narratives on acts of Hyetong are handed down in this area. He came to Gijang and enlightened Dokryong(毒龍) which bothered the people in the time of King Hyoso. Dokryong means not animal but an incurable disease which was hard to be cured by medicine at that time. That Hyetong enlightened Dokryong means is just to cure a disease.

Accordingly, we can understand by the folktales of Buddhism of Gijang that Pure Land Buddhism of Wonhyo was widely spread in this area, and then Esoteric Buddhism of Hyetong was propagated

on the basis of Wonhyo's work. As a result Pure Land Buddhism and Esoteric Buddhism for treat a disease of Gijang has a distinct difference with its surrounding region. So, the indigenous Buddhist culture might has been formed in Gijang which was quite different from Gyeongju's one formed around the country and the royal family.

Key words : Wonhyo, Gijang, Pure land Buddhism, Avalokitesvara, Hyetong, Esoteric Buddhism for treat a disease